

[산업경제]

지방투자보조금,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확 바뀐다

-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-

앞으로는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.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「지방투자촉진 보조금」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'지역 일자리 창출형'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.

- 그동안 '투자액'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'투자액' 과 '고용창출 규모' 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.
- 따라서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,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게 된다.
- 보조금 지원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그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.
 - * 지원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 5%p 추가지원
 - * 지원 저조지역 : 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, 광주, 제주
-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.
- 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제도개편 시 △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, △지역별 보조금 先배분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, 그간 보조금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에도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.
 - * 지원 금액('10 → '11, 억 원) : 부산(0 → 78.2), 광주(3.9 → 65.3), 대구(0 → 53.5), 경북(1.9 → 130.6)

- 그러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중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금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.

* 충남·충북·강원 집중률 : ('10)57.5% → ('11)40.7%

- 또한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, 앞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.
-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,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이전기업 지원			신증설기업 지원	
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입지(-) 투자(5%)	입지(20%) 투자(7%)	입지(40%) 투자(10%)	투자(7%)	투자(10%)

* 기업의 부지매입 비용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

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. 이러한 지역의 산업입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. 그러나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별 기업 인센티브 적용은

주최 : 충청남도경제개발연구원 (충청연구원)
문의 : 020-740-4124 (policy@ceid.go.kr)